

서산마애삼존불상의 정밀 훼손도 진단과 미기상환경 분석

이선명* · 이찬희* · 김지영* · 최석원**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공주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Detailed Deterioration Diagnosis and Microclimatic Analysis of the Seosanmaaesamjonbulssang (Rock-carved Triad Buddha in Seosan), Korea

Sun Myung Lee*, Chan Hee Lee*, Jiyoung Kim*, Seok-Won Choi**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Scienc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314-701, Korea

**Department of Geoenvironmental Scienc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314-701, Korea

1. 서 언

서산마애삼존불상(국보 제84호)은 가야산 협곡의 층암절벽에 조각된 백제의 대표적인 불상으로 백제인의 예술적 재능이 한껏 발휘된 석조문화유산이다. 가야산 일대를 구성하는 중립질 흑운모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이 삼존불은 전면에 걸쳐 발달된 불규칙한 불연속면으로 인해 불안정한 지반상태를 보이며, 부적절한 보존환경에 의해 표면이 오염되고 재질이 약화되어 보존상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삼존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 재질특성을 밝히고 정밀 진단을 통해 풍화훼손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1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미기상환경 특성을 검토하여, 손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환경적 요인과 제어상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2. 재질특성과 훼손도 진단

이 삼존불을 이루는 흑운모화강암은 담회색에서 회색을 띠는 중립질암으로 일부에서는 페그마타이트 및 석영세맥도 관찰되며 전면에 걸쳐 불규칙적인 불연속면의 발달로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암괴를 형성하고 있다. 이 삼존불의 기반암에는 암석의 균열 및 절리계가 곳곳에서 발달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전면에 걸쳐 표면의 요철풍화와 박리박락 및 탈락과 같은 암석의 결실이 나타난다.

암반에 발달된 불연속면의 방향성을 근거로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사면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부분적인 붕괴의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또한 이 삼존불은 전면에 걸쳐 광물의 화학적 풍화와 이차적 오염물에 의해 원암의 조직과 색이 변질되어 표면풍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미관을 해치고 있다.

정밀 진단을 바탕으로 작성된 종합훼손지도를 근거로 훼손도를 정량화하였다. 삼존불의 전체 면적대비 훼손율이 38.96%인 것에 비교했을 때 물리적 풍화는 9.53%, 표면변색은 24.96%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훼손지도 작성 영역에 대해 초음파 탐사를 실시하고 산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2D 모델링을 하였다. 이 결과, 삼존불을 이루는 암석은 평균 0.42의 풍화도지수를 지시하여 HW의 심한풍화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면에 걸쳐 발달하고 있는 불규칙한 절리계를 따라 약 1,000‰의 저속도대가 분포하였다.

3. 미기상환경 분석

2005년 10월 12일부터 2006년 10월 11일까지 일년간 보호각 내외부의 환경변화를 모니터링 하였다. 이 결과, 사계절 모두 95~100%에 달하는 고습도 환경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고습도 환경은 주로 여름에 높은 기온에서 결로현상을 일으키며, 영하의 기온까지 하강하는 겨울철에는 암석 내부 공극 사이에 있던 수분의 동결파쇄를 일으키는 등 화학적 및 물리적 풍화를 촉진시킨다.

보호각 내외부에서 측정된 기상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보호각은 삼존불을 외부환경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 외부에 비해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나 효과는 미약하였다. 따라서 이 삼존불을 훼손인자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보호각 내부를 암습하게 하여 수분을 유지시키는 부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언

서산마애삼존불상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불안정한 사면환경에 노출된 삼존불 암반 주변의 식생제거가 고려되어져야 하며 정량적인 안정성 해석을 통한 적합한 보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표면오염물의 과학적인 세정과 함께 삼존불에 발달된 절리계를 비롯한 결실부위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존수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삼존불의 미기상환경은 복합적인 주변 환경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삼존불의 풍화 및 훼손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수분환경을 제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보존과학적 진단을 통해 합리적인 제어방안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축적이 필수적이다.